

농촌회생대책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222
----------	-----

발의일시 : 2000. 11.
발의자 : 김원석 의원외4

1. 제안이유

최근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농촌을 회생 시키기위한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실행하여 줄 것을 청와대 및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다음과 같이 발의 합니다.

2. 주요골자

- 가. 건의일자 : 제58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 2000.12.5
- 나. 건의내용 : 결의문(안) “불임”
- 다. 건의처 : 대통령, 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
한나라당 총재, 자유민주연합 총재, 농림부장관

3. 근거법령 : : “해당없음”

4. 사전예고결과 : “해당없음”

5. 불임 : 결의문(안) 1부

농촌회생대책 촉구 결의문

존경하옵는 대통령님!

(국회의장님, 새천년민주당 대표님, 한나라당 총재님, 자유민주연합 총재님, 농림부장관님!)

희망찬 21C를 맞아 국정수행에 헌신하심은 물론 특히 우리 지역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데 대하여 22만 충주시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나라의 곤간인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국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땀과 노동을 바쳐온 농민들이 수입농산물로 인한 국내농산물 가격의 폭락으로 생산비 조차도 견지지 못하고 늘어만 가는 빚으로 크나큰 시름에 잠겨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은 거세게 몰려오고 있는 시장개방으로 설 땅을 잃고 벼랑 끝에 놓여있습니다.

무차별적인 농산물의 수입증가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팔지 못한 농산물을 알아엎고, 구조적 농가부채에서 파생된 연대보증으로 한 마을이 모두 파산하는 일마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또한 농촌의 교육, 문화, 의료, 복지 등 생활여건도 날로 악화되어 정든 고향을 등지는 농민이 늘어나는 등 농촌이 위기를 넘어 붕괴로 치닫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촌경제를 회생시키고 우리 농촌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오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한해 농사를 마치고 땀흘려 노력한 결실을 거둬 누구보다도 즐거워해야 할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기 까지에 이르른 것을 보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미봉적인 구농(救農)정책을 탓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직시하고 농촌을 회생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하루속히 실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사항을 결의하오니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1. 농가부채 등 총체적인 농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회생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1. 농산물 가격의 주기적인 폭락을 방지하여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쇠고기시장등 농축산물 완전개방에 대비하여 우리의 농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국내 과수농가를 위협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2000. 12. 5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부의
장장원

박황이 김김이 김서김복 임이 안채김장정변 김김하박권
장영학 원내 종남광관 송영승 유준호 유봉만 광성인재

열주 영석식 원종덕 수덕희 이진명 수승용 주석 일대 유부
김우석